

또 5개국 국경 허문 펀드 판매

금융위,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 패스포트펀드 등록절차 간소화

앞으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아시아 회원 국가 간 공모펀드를 간소화해 교차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환매연기 사유는 추가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연기 사유로 인정한다.

소규모 펀드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자산총액이 300억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았다. 앞으로는,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패스포트 펀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소유 지배구조·재무건전성 등 6개 금융그룹 위험도 통합공시

금융위, 9월부터 6개 그룹 대상
3분기 중 그룹위험 모의평가 실시
그룹 통합공시 방안 세부기준 확정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에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위험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지배구조 등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손 부위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비주주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서울 중로구 금융위원회.

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올해 중으로 그룹위험 평가를 도입한다. 기존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체계를 다.

평가지표와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3분기 중으로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

리에 활용하고,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그룹통합공시방안도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취합해 검증한 후 일괄적으로 공시한다.

6개 금융그룹들은 올해 9월에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한다. 9월 최초 공시에는 2019년 말 기준 연간공시, 2020년 1분기·2분기 기준 분기공시를 모두 해야 하며,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3분기 중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과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끝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협, 조합원에 경영익 1532억 환원

총 3702억 당기순익 시현

신협이 지난해 1532억 원의 경영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은 전국 신협의 결산 결과 총 370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이 중 총 1444억 원을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으로, 88억 원을 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수익으로 환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조합원 배당은 주로 출자금에 대한 현금 배당이지만 어린이집, 헬스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며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DB손해보험 2019 연도상 시상식 방송 진행

코로나 영향 사내방송 통해 시상
고객만족지표 우수 수상자 479명

DB손해보험은 지난 18일 매년 진행하던 연도상 시상식을 올해엔 사내방송을 통해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일환이다.

이날 방송에는 DB손보 프라이메이전트(PA) 중에서 영업실적과 고객만족지표가 우수한 연도상 수상자 479명과 명예의 전당 회원 375명이 소개됐다.

연도상 최고의 영예인 판매왕은 황금속 남부사업단 PA가 수상했다. 꾸준한 영업활동으로 보유고객이 1533명에 이를 정도로 성실한 활동을 이어온 황PA는 2005년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회사를 대표하는 판매왕의 자리에 올랐다.

DB손보는 소수 상위자의 시상 아닌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과 고객만족지표 등을 충족하면 선발하는 '챌린지상' 71명과 명예의전당(DBRT) 375명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왼쪽)이 지난 18일 진행된 연도상 시상식에서 올해 연도상 판매왕으로 선정된 황금속 PA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을 시상했다. 또 3~5년차 영업가족에게 지속적 성장비전 제시를 위한 '비전클럽상', 고객관리 서비스 우수자에게 '고객만족상' 등을 시상하는 등 이번 방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낸 DB손보 PA 모두를 축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김정남 DB손보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방송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세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채안펀드, 내달부터 A+등급 여전채 포함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다음 주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채안펀드는 다음달부터 'A+ 등급'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사들일 수 있으며, P-CBO는 'A- 등급' 이상의 여전채도 편입할 수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속도를 낸다. 다음 주 중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6월 중으로는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손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비우량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의 경우 시장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장안정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비우량 등급 회사채·CP 시장의 수급을 보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가동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이 AA- 이상 등급이었지만 이후 A+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Fallen Angel)들도 편입했다.

오는 29일에는 총 5090억 규모(23개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BO와 4277억 규모(174개 기업)의 주력산업 P-CBO를 발행할 계획이다. 여전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A+ 등급의 여전채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P-CBO 발행시 A- 등급 이상의 여전채도 포함해 지원한다. /안상미 기자

하나카드

모바일 전용 '모두의쇼핑'

하나카드는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이란 슬로건 아래 준비한 '모두의쇼핑' 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두의 쇼핑 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환경에 맞춰 그동안 하나카드가 준비해온 카드 이용 전 과정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디지털 발급 채널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전용카드로 출시된다.

이 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나카드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 기본 혜택을 제공한다. /김희주 기자

KB금융그룹

피겨 유망주 후원 계약

KB금융그룹은 19일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인 유영(16, 수리고), 이해인(15, 한강중), 김예림(17, 수리고)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기존 후원선수인 임은수(17, 신현고) 선수와 더불어 피겨 유망주 네 명의 선수를 후원하게 됐다.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는 유영 선수는 데뷔 무대였던 2019/2020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2020 로잔 유스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월



(왼쪽부터)유영(16, 수리고), 이해인(15, 한강중), 김예림(17, 수리고), 임은수(17, 신현고) 선수. /KB금융그룹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해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니어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린 이해인 선수는 2019/2020 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7년 만에 대한민국에 주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안겼다.

/안상미 기자